

쿠웨이트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9. 1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0
V. 종합의견	12

쿠웨이트(State of Kuwait)

I. 일반개황

면적	18천 km ²	G D P	1,121억 달러(2007년)
인구	3.4백만 명(2007년)	1인당 GDP	32,976 달러(2007년)
정치체제	입헌군주제(왕정)	통화단위	Kuwait Dinar(KD)
대외정책	친서방 실리외교	환율(달러당)	0.27(2007년)

- 아라비아반도 동북단에 위치한 쿠웨이트는 한반도의 1/12에 달하는 국토면적과 3.4백만명의 인구를 보유한 소국이나, 세계 4위의 원유 매장량(1,015억 배럴, '07년 기준)을 바탕으로 1인당 GDP가 33,000 달러에 달하는 자원부국임.
- 정치체제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입헌군주국으로, 국가 각 기관의 권한을 규정한 헌법(1962년 반포)을 바탕으로 국민직선제에 의한 국회를 지니고 있으며, 19세기말 Mubarak 대제(1986-1915) 이후 그의 두 아들이었던 al-Jabr와 al-Salem 가문이 교대로 왕위를 세습하고 있음.
- 풍부한 오일달러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재정수입을 기반으로 해외대학 유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료 의료제도, 각종 정부보조금 지급 등의 조치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 국가를 지향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e
경제성장률	10.7	11.4	6.3	4.7	8.5
재정수지/GDP	24.9	39.4	29.1	42.4	31.5
소비자물가상승률	1.3	4.1	3.1	5.0	6.5

자료: IMF, EIU

□ 국제유가 강세에 힘입은 고성장세 유지

- 2004-05년 쿠웨이트 경제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수출 증가, 해외투자 자산의 수익증대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공공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두 자릿수의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음.
- 2006-07년에는 산유량 감소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 및 투자위축의 영향으로 경제성장이 각각 6.3%, 4.7%로 둔화되기도 하였으나, 2008년에는 석유증산 및 非석유산업(금융, 운송, 통신서비스 중심)의 호황, 정부 및 해외 투자 확대에 힘입어 8.5%의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2009년에는 OPEC의 감산결정(150만 b/d) 및 국제유가 하락세의 영향으로 석유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세계 경기침체 악화로 인해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보여, 경제성장은 4.1%로 둔화될 전망이다.

□ 재정수지 흑자기조 유지

- 재정수지는 국제유가 상승세에 따른 재정수입(收入) 증가의 영향으로

7년 연속 대규모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GDP 대비 42.4%의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09-10년에는 산유량 감소와 국제유가 하락세의 타격을 받아 재정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인플레이 완화를 위한 임금상승 및 이전지출 증가로 재정지출 또한 확대될 것으로 보여, 재정흑자 규모는 GDP 대비 각각 4.0%, 5.6%를 기록할 전망이다.

□ 소비자물가 상승세

- 소비자물가는 정부의 적극적인 보조금 지급정책에 힘입어 2003년 이후의 고성장 국면 속에서도 평균 3%대의 안정세를 기록해왔음.
- 그러나 최근 대규모 오일머니 유입에 따른 유동성 증가, 내수 증대, 국제 식료품 가격 상승 등이 물가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여, 2007년 소비자물가가 5.0%를 기록한 바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2008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2. 경제 구조 · 정책

[구조적 취약성]

□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

- 쿠웨이트는 2007년 기준 석유부문이 총 GDP의 52%, 총 수출의 95%, 재정수입의 80%를 차지하는 등 석유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 변동이 국가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
 - 산업별 GDP 구성비('07년 기준): 석유(52%), 서비스업(40%), 제조업(4.8%), 기타(3.2%)

[성장 잠재력]

□ 향후 100년 이상 석유생산이 가능한 에너지 부국

- 동국은 세계 4위의 석유 매장량(1,015억 배럴, '07년 기준)을 보유한 에너지 부국으로, 현재 일산량인 270만 배럴로 가정 할 때, 향후 100년에 걸쳐 석유 생산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음. 석유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매장량과 수출 규모가 막대하여 석유 산업이 지속적인 미래 성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음.
 - 현재 일일 최대 원유 생산 가능량의 100%인 27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으며, 북부 유전개발 프로젝트('Project Kuwait') 및 설비투자 확대 등을 통해 일일 생산능력을 2010년 300만 배럴, 2020년에는 400만 배럴까지 확대할 계획임.
 - 또한 석유를 수출하던 단순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정유시설, 석유 화학 산업 등 고부가가치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인프라 건설을 적극 추진 중임. 아울러, 향후 안정적인 수출망 확보를 위해 중국, 인도 등 신흥공업국과의 석유산업 공동개발을 적극 모색 중임.
- * 국영석유회사(Kuwait Petroleum Corporation, KPC)는 석유·정유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2020년까지 최소 68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

□ 차세대 기금을 통한 탈석유화 이후 미래 대비

- 동국은 석유자원 고갈 이후 혹은 대체 에너지 개발에 따른 석유시장 급변에 대비하기 위해 석유 판매수입의 최소 10%를 차세대 기금(Reserve Fund for Future Generation, RFFG)으로 적립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동 기금은 쿠웨이트투자청(Kuwait Investment Authority, KIA)이 관리

하고 있으며, General Reserve Fund를 포함한 국부펀드의 자산규모는 세계 4위인 약 2,500억 달러('07년말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정책성과]

□ 막대한 재정수입을 바탕으로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 및 인프라 투자 확대

- 동국은 국제유가 상승 추세에 힘입어 7년 연속 재정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약 475억 달러(GDP 대비 42.4%)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이라크로부터의 안보위협 등으로 인해 미뤄왔던 석유화학, 발전, 항만 등의 개보수 증설 등 국가 기간산업용 대형 프로젝트 발주에 주력해왔으며, 최근에는 도로, 발전소 등의 인프라 건설은 물론 병원, 교육시설 등 사회복지 확충을 위한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있음.
 - 재정지출: 212억 달러('04) → 351억 달러('06) → 635억 달러('08)

□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

- 동국은 2001년 4월 외국인투자법을 제정, 2003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의 100% 단독투자 허용(과거 외국인의 최대 출자 비율은 49%), 법인 소득세의 10년간 면제, 자유로운 과실송금 허용 및 정부의 외국투자기업 국유화 금지 등을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중·소규모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 심의위원회에서 투자 허가를 쉽게 해주지 않고 있으며, 대규모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산업에 대한 이바지 정도를 감안하여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음(법과 현실의 괴리 상존).

- 2008년에는 외국기업의 법인세율을 기존의 55%에서 15%로 대폭 인하하고, 주식투자에 의해 획득한 순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는 개정안을 도입하는 등 우호적인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 중임.

□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 활발

- World Bank 및 IMF는 동국의 비대한 공공분야를 경제구조의 취약점으로 지적해 옴. 이에 따라, 재정수입 확대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향한 정책의 일환으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해오고 있음.
 - 주요 성과로는 ① 국영 항공사인 Kuwait Airways의 민영화, ② 쿠웨이트투자청(KIA) 계열사의 민간부문 매각, ③ 국영석유회사(Kuwait Petroleum Company, KPC) 소유의 주유소 민영화 추진 등을 들 수 있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e
경 상 수 지	18,161	34,308	51,571	47,471	59,746
경 상 수 지 / G D P	30.6	42.5	50.7	42.3	39.7
상 품 수 지	18,426	32,733	44,307	43,056	63,198
수 출	30,089	46,971	58,638	63,681	89,322
수 입	11,663	14,238	14,331	20,625	26,124
외 환 보 유 액	8,350	8,972	12,676	16,776	13,565
총 외 채 잔 액	12,122	16,495	25,585	33,616	38,570
총 외 채 잔 액 / GDP	20.4	20.4	25.2	30.0	25.6
D . S . R .	3.1	1.4	1.9	3.3	2.6

자료: IMF, EIU

□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대규모 흑자 지속

- 상품수지는 국제유가 상승 및 산유량 증가에 따른 석유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2004년 182억 달러 수준에서 2007년 475억 달러로 두 배 이상 확대되었음. 2008년에도 국제유가의 기록적인 강세 및 산유량 확대로 사상 최고치인 632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 경상수지도 2004-07년 연평균 38%의 높은 성장세를 보임. 한편 2007년에는 수입 급증으로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다소 축소되고, 서비스수지 및 경상이전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한 총 GDP의 42.3%인 475억 달러를 기록하기도 하였음.
-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증가세 둔화, 소득수지 흑자폭 축소 등의 타격을 받아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의 흑자규모가 각각 328억 달러, 258억 달러로 절반 가까이 축소될 전망이다.
 - 상품수지: 443억 달러('06) → 431억 달러('07) → 632억 달러('08)
 - 소득수지: 132억 달러('06) → 129억 달러('07) → 87억 달러('08)
 - 서비스수지: -23억 달러('06) → -34억 달러('07) → -60억 달러('08)
 - 경상이전수지: -36억 달러('06) → -51억 달러('07) → -62억 달러('08)

[외채상환능력]

□ 풍부한 외환보유액, 낮은 D.S.R.등 외채상황은 양호

- 외환보유액은 오일머니와 대규모 FDI 유입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2007년말 외환보유액은 16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08년에는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한 13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FDI: 121백만 달러('06) → 119백만 달러('07) → 278백만 달러('08)

- 총 외채규모는 석유화학 및 인프라 개발 사업 확대의 영향을 받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GDP의 가파른 증대로 인해 GDP 대비 외채 비중은 평균 2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음.
- D.S.R.도 평균 3% 미만의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대외 지급 능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 GDP: 1,017억 달러('06) → 1,121억 달러('07) → 1,506억 달러('08)
 - 총 외채잔액/GDP: 25.2%('06) → 30.0%('07) → 25.6%('08)
 - 외채상환비율(D.S.R.): 1.9%('06) → 3.3%('07) → 2.6%('08)

III.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정치 안정]

□ 정치 안정세 지속

- 2006년 1월, Sabah 총리가 제 15대 국왕으로 취임한 이후 안정적인 국내정세가 유지되고 있음. Sabah 국왕은 외무장관과 총리로서 40년 이상의 풍부한 국정운영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주의적 개혁 성향으로 국민들의 폭넓은 신망을 받고 있어, 정치적 불안요인은 거의 없음.

[국제관계]

□ 서방 및 주변국가와 원만한 관계 유지

- 동국은 비동맹 중립외교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친미 · 친서방 정책을 견지하여 걸프전 이후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과 방위조약을 체결한 바 있음. 또한 2003년 이라크 전쟁 시, 미국

에게 전진기지를 제공하고 서방국가의 자본을 유치하는 등 군사적, 경제적으로 서방국가들과 친선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또한,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의 일원으로서, 2010년까지 GCC 단일통화 도입, GCC 종합 철도 프로젝트 및 공동 핵 발전소 프로젝트 추진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 및 레바논에 대한 경제 원조를 꾸준히 제공해오고 있음.

* 쿠웨이트는 2006년 8월,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무력 충돌 시, 對 레바논 원조에 적극 참여한 바 있음(3억 달러 전후복구 재건지원, 5억 달러 외화 안정자금 예치지원, 2천만 달러 긴급구호지원 등).

□ 이란과는 갈등 지속

- 이란과는 미국과의 오랜 친선관계로 인한 정치적 갈등과 수니파(쿠웨이트 60%)-시아파(이란 89%)간 종교적 마찰이 지속되고 있음.
- 향후 이란이 핵문제의 진전 상황에 따라 석유 무기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의 극단적 조치를 취할 경우, 지역 정세의 불안 여파가 지리적으로 인접한 쿠웨이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세 변화에 대한 주시가 요구되는 상황임.

2. 사회 및 소요사태

[사회안정]

□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국가

- 동국은 막대한 오일머니의 튼튼한 재정기반을 바탕으로 해외대학 유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무료 의료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각종 정부보조금 지급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음.

□ 사회적 이질감 상존

- 동국은 국민을 1등 국민(참정권 향유)과 2등 국민(귀화 후 20년 미경과자로서 참정권 미보유)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약 12만 명에 달하는 아랍계 무국적자 및 외국인 근로자들이 공존하여 사회적 이질감이 형성되고 있음. 아울러, 남녀 간 성비 불균형, 이혼율 증가, 실업률 증가 추세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소요/사태]

- 서구식 자유를 향유코자 하는 신세대와 보수 이슬람 세력 간 세대 갈등과 자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불협화음이 상존하나, 소요사태를 일으킬만한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됨.

IV. 국제신인도

1.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OECD : 2등급 (2006. 10) → 2등급 (2007. 10)
- S&P : A+ (2002. 4) → AA- (2007. 7)
- Moody's : Aa3 (2006. 10) → Aa2 (2007. 7)
- Fitch : AA- (2007. 5) → AA (2008. 9)
- ICRG : 10/140 (2007. 12) → 10/140 (2008. 11)
- I.I : 32/174 (2008. 3) → 32/177 (2008. 9)
- Euromoney : 27/185 (2008. 3) → 25/186 (2008. 9)

- Fitch는 쿠웨이트의 막대한 재정수입(收入), 대외거래지표의 개선추세, 공공부문의 개혁성과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최근 국가신용등급을

기존의 'A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조정하였음.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 전액 인수 가능
- 영국 ECGD : 전액 인수 가능
- 독일 Hermes : 단기 전액 인수 가능

3. 외채상환태도

리스케줄링 경험 없음

- 최근 석유산업 및 인프라 개발 확대에 따라 외채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GDP의 성장이 가파르고 D.S.R.도 평균 3% 미만을 유지하고 있어 동국의 외채상환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4. 우리나라와의 관계

<표 3>

한 · 쿠웨이트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05	2006	2007	주요품목
수 출	458	670	1,306	철강, 자동차, 선박, 고무제품
수 입	5,977	8,133	8,747	원유, 석유제품, 금속제품
합 계	6,435	8,803	10,053	

자료: KOTIS, 한국무역통계

국교수립 : 1979년 6월 11일(북한과는 2001년 4월 4일 수교)

주요협정 : 항공협정('81), 문화협정('82), 이중과세방지협정('98),
경제무역기술협력협정('05)

- 우리나라와의 2007년 교역규모는 약 101억 달러에 달함.
 - 주요 수출품은 철강, 자동차, 선박 등을 중심으로 약 13억 달러, 수입은 원유, 석유제품, 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약 87억 달러를 기록
- 해외직접투자(2008년 9월말 누계, 총 투자 기준): 13건 7,614천 달러

V. 종합의견

- 쿠웨이트 경제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산업 호조,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개혁, 非석유산업(금융, 운송, 통신서비스 중심)의 호황 등에 힘입어 연평균 8.3%의 견실한 경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음.
- 석유산업에 편중된 경제구조가 취약점으로 남아있으나, 향후 100년 이상에 걸쳐 생산이 가능한 풍부한 원유 매장량(1,015억 배럴, '07년 기준)을 보유하고 있어, 석유산업 자체가 동국의 커다란 성장 잠재력으로 각광받고 있음.
- Sabah 국왕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높아 정치 안정이 지속되고 있으며, GCC 주변국 및 미국, 영국 등의 서방국가들과 친선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국제관계가 양호함.
- 리스케줄링 사례는 없으며, 2007년말 총 외채잔액은 336억 달러(GDP의 30%), D.S.R.은 3.3%로 양호한 외채상황을 유지하고 있음.

전문연구원 김예리(☎02-3779-6654)

E-mail : yeliekim@koreaexim.go.kr